

시민, 학생, 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으로 평생 관리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란?

vt.busan.go.kr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평생 누적관리 및 방대한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산 시스템



### 가입대상

- 개인회원 : 일반시민·학생 등
- 단체회원 : 새마을·청년회·바르게·자유총연맹 등 유관단체/시민·사회·자원봉사단체/비영리민간단체/기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 등록회원에게 대한 혜택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웹)에서 실적 확인

- 언제, 어디에서나 자원봉사활동을 해도 활동실적이 평생 누적 관리됩니다.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실적확인이 필요한 학생, 취업자 등에게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신속한 정보(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 회원가입 신청 절차

- 개인회원 : vt.busan.go.kr(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접속 → 회원가입 → 자원봉사센터 등록승인
- 단체회원 : 단체가 소재한 시, 구·군별 자원봉사센터에 '단체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 자원봉사센터 등록승인 → 단체 소속 개인회원이 직접 개인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직접 등록



1. vt.busan.go.kr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2. 회원가입



3. 자원봉사센터 등록 승인

자원봉사자 회원 가입 완료 로그인

이메일로 회원가입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신규자원봉사자' 명단에서 확인



### 가입신청 및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65**  
 864-1365

- |                        |                          |                          |
|------------------------|--------------------------|--------------------------|
| 부산광역시 [vt.busan.go.kr] | 강서구 [vt.bsgangseo.go.kr] | 금정구 [vt.geumjeong.go.kr] |
| 기장군 [vt.gijang.go.kr]  | 남구 [vt.bsnamgu.go.kr]    | 동구 [vt.bsdonggu.go.kr]   |
| 동래구 [vt.dongnae.go.kr] | 부산진구 [vt.busanjin.go.kr] | 북구 [vt.bsbukgu.go.kr]    |
| 사상구 [vt.sasang.go.kr]  | 사하구 [vt.saha.go.kr]      | 서구 [vt.bsseogu.go.kr]    |
| 수영구 [vt.suyeong.go.kr] | 연제구 [vt.yeonje.go.kr]    | 영도구 [vt.yeongdo.go.kr]   |
| 중구 [vt.bsjunggu.go.kr] | 해운대구 [vt.haeundae.go.kr]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산자원봉사

월간 / 제111호

2007년 2월 1일

<http://vt.busan.go.kr>

자원봉사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365

발행인 : 류기형 편집인 : 김용명 발행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등록번호 : 부산라 01145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 상수도사업본부 10층 전화 : (051)864-1365 팩스 : (051)888-6907 편집·인쇄 : 국제신문

## 추위야 물러가라, 자원봉사 나가신다

### “22기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들” 전국의 대학생 113명 참가



자원봉사 가치를 높이 들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새해를 시작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주최 겨울방학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22기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들(이하 세바)”이 추위 속 열정의 주역들이다.

22기 세바는 지난달 4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사랑의 추억 앨범 만들기, 도전! 방학 만들기, 손으로 보는 세상(점역),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장애인과 함께 세상 엿보기, 어르신과 함께 하는 Happy Together,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문화야, 놀자”, 블런티어한마당, 세바VJ특공대 등 9개 프로그램 12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봉사를 하면서 성의껏 하려는 마음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든 봉사할 때처럼 한다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는 장효정(인제대2)양의 말처럼 참가자들에게 자원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학가 방학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세바는 부산시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 96년 시작되어 올해로 12년째를 맞으면서 단기간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대학생들의 참가 열기가 높다.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출범

#### 1월 24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열어

그 동안 부산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해오던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자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권상 부산시행정부시장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센터장은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창립총회에서 구성된 임원(이사)들은 김지 부산시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또는 자원봉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이 기대된다.

이번에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2월중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3월 초순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 교육청과 연계 · 협력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17개 자원봉사센터와 부산시교육청이 연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들을 수용할만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수요처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는 현안해결 모색 및 상호협력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깊다.

### 사이버상 자원봉사 관리체제 정착

부산지역 17개 자원봉사센터의 사이버상 관리체제인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 의하면 작년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회원가입자가 819명이던 것이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8천839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월 대

비 10.8배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 중추적 자원봉사 관리체제를 나타낸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기업봉사단, 청소년, 공무원 등 가입회원 형태도 다양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중심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자원봉사 전문 도서 확충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설 자원봉사도서실은 지난해 자원봉사 도서(영상자료 포함) 97종 215권을 확충, 2천여권의 자원봉사 도

서를 구비하게 되었다. 현재 자원봉사도서실에는 사회복지 및 일반도서를 합쳐 총5천여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 자원봉사활동 실적 통보 안내

#### ■ 양식에 따른 봉사단활동 일괄통보(월1회 이상)

① 봉사단 회원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등록(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봉사단 대표 : 봉사단활동 일괄통보 (양식 : 홈페이지 자료실 '알기 쉬운 자원봉사' 검색) ※단체활동이 아닌 개별활동은 활동처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



③ 센터 : 개인별 활동기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평생 누적관리)

#### ■ 자원봉사자수첩 소지자의 활동내용 통보(월1회 이상)

① 봉사단 회원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등록(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봉사단 회원 : 활동내용 수첩에 기록(활동처 확인필)



③ 봉사단 대표 : 회원들의 활동이 기록된 수첩을 모아 센터에 제출(월1회 이상)



④ 센터 : 개인별 활동기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평생 누적관리) ※수첩소지자는 1년 경과시 마다 센터를 방문, 확인 요망

신입회원은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http://vt.busan.go.kr>)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여야 실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방재청 주최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발전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의 자율적 방재단에 대한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어 운영모델에 대한 부분을 발췌, 게재합니다.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모델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장 성기환

한국은 종전까지 재난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민간조직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72년 미국의 산페르난도 지진을 계기로 최초로 소방청 방재업무계획에서 자주방재조직의 정비규정을 마련했으며,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재기본계획에 자주방재조직의 강화를 위해 지도자 육성과 지침 작성, 기자재 정비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제도 신설 등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02년 현재 자주방재조직의 전국조직율은 57.9%로 1995년 대비 12%가 증가하였다.(일본소방청, 2002)

일본은 해당지역의 '지역성'을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1955년부터 국가가 기자재 정비지원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기자재 정비비의 1/3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한 시정촌의 Volunteer Center를 전국 규모로 통합하여 "재난 Volunteer Data Bank"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신은성, 2003:68) 일본의 고베지진 때 구출자의 34.9%는 자력으로, 31.9%는 가족에 의해, 28.1%는 친구와 이웃에 의해 2.6%는 통행인에 의해 구출 받았다고 하여, 구출자의 95%가 민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난발생유형의 다양화, 복잡화로 공공서비스를 통한 방재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방재조직에 의한 재난관리는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이다.(신은성, 200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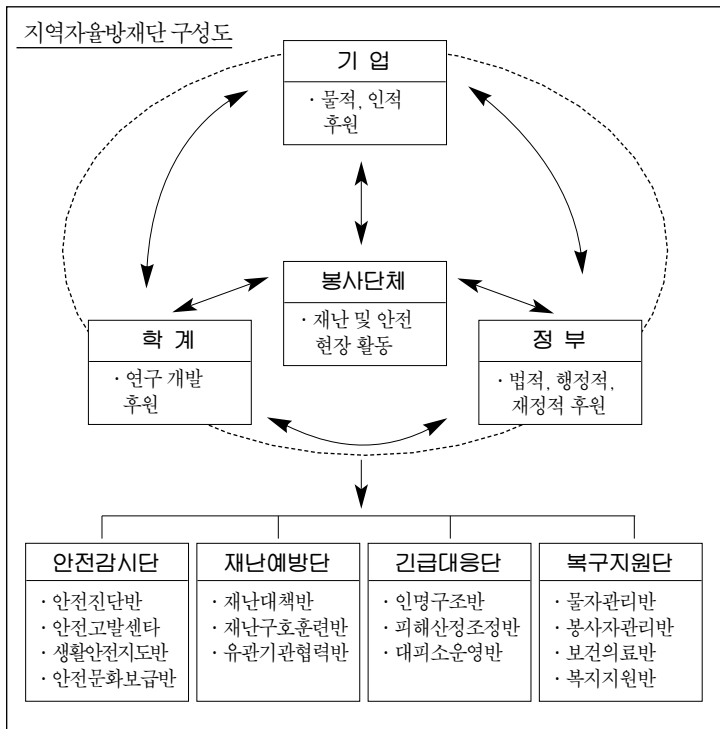
재난안전활동을 위한 민간산학네트워크는 봉사단체,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여야 한다. 재난시 또는 평시 안전활동은 봉사단체가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기업은 물적, 인적으로, 그리고 학계는 연구개발분야에서 후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재난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난현장 활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봉사활동시간의 세금감면과 같은 보상체계를 통해 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민간조직들의 재난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을 수행토록 하고 안전문화반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자리 잡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재난안전관련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안전문화 보급을 위해 활동한다.

재난예방단은 재난발생 이전에 체계적인 재난준비를 수행하



방재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정부가 NVOAD나 CERT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듯이 자주방재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활동의 중심체로서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그리고 복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감시단은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체로서 안전진단반, 안전고발센터, 생활안전지도반, 안전문화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진단반에서는 위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사전에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안전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주변의 위험들을 제거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생활안전지도반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생활 지도와 같은 활동

을 수행토록 하고 안전문화반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자리 잡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재난안전관련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안전문화 보급을 위해 활동한다.

중심체로서 재난대책반, 재난구호훈련반, 유관기관협력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난대책반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유관기관간에 합동으로 수립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재난구호훈련반에서는 공동으로 수립된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합동구호훈련을 실시토록 하며, 유관기관협력반에서는 기관간 비상연락망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토록 한다.

재난에의 대응은 재난현장의 긴급성과 위험성에 의하여 전문화되고 일원화된 통합관리체제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기능의 미약, 공공조직과의 연결접점과 규칙의 미확보 등 일반적인 형성기반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해서 재난발생시에는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

한 시민단체를 재난통합관리시스템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재난현장의 긴급성과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된 시민단체도 부족하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형 재난 현장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조직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의 경우는 현장에서 활동할 요원이 부족함은 물론 훈련된 전문자원봉사자나 단체도 부족하고, 다양한 자원봉사자나 조직을 일원화된 재난통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현장대응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긴급대응단은 재난발생시 초동단계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중심체로서 인명구조반, 피해산정조정반, 대피소운영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미국의 CERT프로그램이 주로 인명구조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듯이 인명구조반의 구성을 통한 자주방재력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적십자자연맹에서 초기 구호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FACT(Field Assessment and Coordination Teams)와 같이 현장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통한 기관간의 업무 조정을 통한 통합적 활동을 수행키 위한 피해산정조정반의 운영이 필요하며,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할 대피소 운영반의 운영이 요구된다.

복구지원단은 이재민들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체로서 물자관리반, 봉사자관리반, 보건의료반, 복지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복구단계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한다든가 구호장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물자관리반이 필요하며, 현장에 찾아온 각 자원봉사단체들, 개별봉사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봉사자관리반, 방역활동, 예방접종 그리고 재난심

리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보건의료반, 장애인,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의 보호나 유아, 어린이 등의 아동보호 등을 수행할 복지지원반 등의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재난지역이 대응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역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는 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수적이다. 긴급대응단은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정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전국적인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국가적인 대형 재난시 어디에서나 현장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가 적은 지역의 단원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법적인 활동 근거를 가진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구속력이 없어서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것이다.

셋째로는 조직의 주목적이 재난관리 업무여야 한다.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한 업무 비중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우선순위에 밀려 충분한 재난관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민간기구로는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민방위동·리대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인 조직이면서 재난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활동이 가능한 조직이다.

긴급대응단에는 시민자원봉사대나 지역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나 전문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 재난상황의 혼란상 속에서 피해상황과 필요한 방재자원을 조사하고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 작업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한다.

## 알림

### 자원봉사 출장교육 서비스 지원 희망단체 신청·접수중

-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참여 유도
- 대상 : 자원봉사 교육을 희망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 내용 : 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20명 이상 출장교육 지원)  
② 교육 내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희망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 자원봉사 자료 기증 받습니다

- 내용 : 자원봉사관련 도서, 논문, 각종 행사 및 교육자료, 시청각자료 등
- 비치 :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설 자원봉사도서관
- ※ 기증한 자료는 자원봉사 연구와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명예기자 모집

- 내용 : 정기간행물 '부산자원봉사' 발행을 위한 취재 봉사활동
- 일정 : 월1회, 활동시간 조정가능
- 자격 : 성실하게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분
- ※ 면접시 취재기사 증빙자료 제출

### 자원봉사 평생관리시스템 가입단체 모집

- 혜택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생관리 및 확인서 발급
- ※ 부산시내 단체 및 기관, 시설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을 평생 누계 관리해 드립니다.
- ※ 상담 후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화 (051) 864-1365 / 팩스 (051) 888-6907  
이메일 bc1365@chol.com

### ■ 나눔가게 판매봉사자 모집

- 일시 : 월~토(시간조정 가능)
- 목적 : 기증 재할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돕기
- 문의 : 동구자원봉사센터 ☎ 441-7755

### ■ 발마사지 봉사자 모집

- 내용 : 2주 화요일 오후1시~2시, 전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사지 봉사
- 자격 : 건강과 발마사지에 관심 있는 분
- 혜택 :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우선 등록
- 문의 :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 863-2494

### ■ '사랑의 떡국 나누기' 참여 및 봉사자 모집

- 내용 : 홀로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떡국 전달 및 세배드리기, 2/10(토)까지
- 참여 : 일정금액(금액제한 없음)을 송금 - 우체국, 600700-01-005923, 사상구자원봉사센터(예금주)
- 봉사신청 : 2/1(목)~2/9(금)
- 문의 : 사상구자원봉사센터 ☎ 309-5662

### ■ 무료봉사 합니다

- 내용 : 이미용(2주 화, 10시~14시) 수지침(2·4주 금, 11시~13시) 노인상담(월~금, 10시~17시)
- 문의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752-8766

### ■ 이미용서비스 희망자(단체) 신청 받습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 봉사 : 신항교회 이미용선교부 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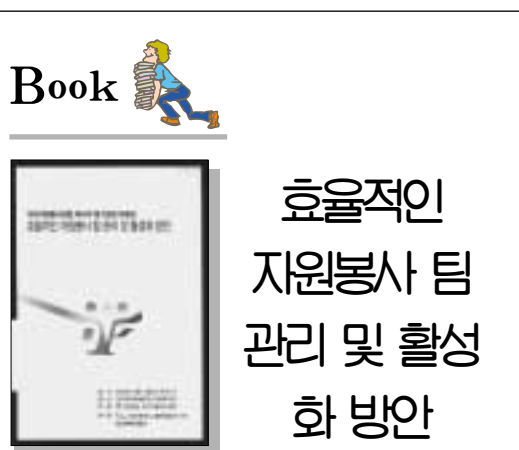
- 문의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 862-0592

### ■ 해피커리어 이벤트

- 내용 : 해피커리어 해피스토리 내의 게시판에 봉사활동 경험담 게재
- 상품 : <최우수 2명>10만원 상당의 쌀을 자신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 <우수 10명>1만원 상당의 커리어 교통카드와 문화상품권 <매일 봉사활동 참여 4개 팀>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 발표 : 매월 5일, 해피커리어 공지 및 개별통보
- 문의 : 커리어넷 미디어사업팀 ☎ (02)2006-9503, <http://happy.career.co.kr>

### ■ 제1회 자연재난 사진 및 영상공모전

- 부문 : 사진분야, 영상분야
- 소재 : 자연재난 관련 모든 사진 및 영상물 중 국내외의 미 발표작
- 규격 : <사진부> 11'×14' 흑백 또는 칼라로 확대인화가능 작품 <영상부> 1~3분 영상, CD로 제출, mpeg 등 동영상 파일형태
- 기간 : 3/2(금)~3/15(목)
- 접수 : 한국BCP협회 (110-061)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B/D 1008호
- 문의 : 한국BCP협회 ☎ (02)2100-5413



자원봉사가 확산되면서 팀별 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자원봉사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대구자원봉사포럼 제14차 정기포럼 자료집으로서 그 방안모색을 위한 발제, 토론, 운영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펴낸곳 : (사)대구자원봉사포럼
- 분량 : 89쪽
- 내용 : <주제발제> 효율적인 자원봉사 팀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지정토론> 운영사례 - 기업, 지역복지, 어르신, 주부, 전문영역

## 봉사자 모집

-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 전문봉사단 : 외국어, 의료, 문화예술분야 등
  - 재난복구봉사(수시)
- ☎ 금정구자원봉사센터(☎ 512-2461)
  -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주1회)
  - 저소득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이미용봉사(월1회)
  - 시설목욕봉사(월1~2회) : 동래양로원, 4·5주 토요일
- ☎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863-2494)
  - 반찬배달 및 차량봉사(2주 토) : 해피북봉사단과 협력봉사
- ☎ 북구자원봉사센터(☎ 309-4126)
  - 차량봉사(수시)
  - 재가봉사 : 북구지역 지체장애이댁 방문봉사
- ☎ 사하구자원봉사센터(☎ 292-2550)
  - 초등학생 수학 학습지도(주1회)
  - 목욕봉사 : 노인시설 및 노인병동 방문봉사
- ☎ 서구자원봉사센터(☎ 256-5870)
  - 독거노인 생활도우미
  - 풍물·노래·문화활동 지도
  - 노인요양병원 도우미

-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752-8766)
  - 목욕봉사(월1회) : 노인시설 어르신(여) 대상 목욕봉사
  - 장애인봉사(수시) : 병원·업무 이동안내 및 차량봉사
  - 사진촬영(수시) : 행사사진 촬영
-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862-0529)
  - 홀로어르신댁 방문봉사(주1회) : 청소 및 말벗, 빵배달
  - 녹산횃집 홀로어르신 무료중식제공 도우미 : 수요일(마지막주 제외) 오전11시~오후2시
- ☎ 중구자원봉사센터(☎ 441-1365)
  - 센터 홍보 도우미(4주 토) : 청소년, 일반인
- ☎ 부산시맹인복지관(☎ 338-0019)
  - 생활체육교실 도우미(주2회) : 단전호흡교실, 헬스교실
-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543-2431)
  - 아동 방과후공부방 지도(주1~2회)
  - 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도우미 : 20세 이상 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람 - 황 춘 자

봉사하며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지



“저 무서운 미국 헌병이 저에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주머니가 타고 계신 차량을 공항에서 빼지 않으면 100불짜리 스티커를 댄답니다.” 92년 미국 공항에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몰려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황춘자(65)씨의 영어공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황씨는 인터뷰가 이뤄진 자택 거실에서 손때 묻은 영어공책을 내밀었다. “새벽 한 두시가 될 때까지 잠을 줄여 영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배운 영어가 쓸모 있었어요” 황씨는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영어통·번역봉사단 회원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글서당’의 훈장님(?) 중 한 명이다.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 주는 활동을 2000년부터 해왔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우즈베키스탄, 터키,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황씨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글서당’ 수업은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져 외국인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에 대해 많이 배워요”라고 하는 황씨는 외국인들을 보고 “저마다 걸모습은 다르지만 인정 깊고, 사랑할 줄 아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냐는 질문에 외국인의 이름이 여러 명 나왔을 정도로 학생들이 그립다고 했다.

다정다감한 한국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어 했던 캐나다의 알리나 아가씨, 헤어질 바지를 꿰매주고 세탁해준 황씨를 ‘맘(Mom, 엄마)’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미국 청년 제이미, 콩나물 무침을 정말 잘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우즈베키스탄 아큰 부부까지.

‘한글서당’ 활동 외에 다양한 국제행사 활동 또한 황씨의 보물 중 하나이다. 2002년 AVA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와 아시안게임, 작년에 열린 UNESCAP 교통장관회의 등에서 봉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물품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작년에는 부산시자원봉사센터장상을 받기도 해 더욱 머리가 숙여진다고 한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표현력을 기르고 싶다는 황씨. 외국인들에게 더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포부가 대단했다. “삶의 질은 오늘도 내일도 배우고 나누면서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지”라는 황춘자씨의 열정적인 배움과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배수림 명예기자

동북아통신

연해주 의료병원 설립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1월 20일부터 3박 4일간 송시원·장기영·배한호 한의사와 백승학 서울치대교수 및 의료관계자 4명, 이용태 경방한방술루션제약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료단의 연해주 의료투어가 있었다. 투어목적은 21일 블라디보스톡의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우수리스크에 있는 ‘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기념관’ 내 ‘외래병원 설립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병원설립문제”라는 주제 발제, 한·러의 학교류 및 협력방안, 우수리스크 의료실태와 병원운영 문제, 한방치료실태와 과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로 진행됐다. 의료투어단 외에도 연해주 및 우수리스크 보건당국과 각계 병원의료진, 우수리스크 고려인 의사단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평의료위원이기도 한 배한호 다음한의원장은 한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반면, 여건이 너무나 척박한 연해주를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올봄에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 의료진의 의료봉사활동과 의료기계 전달절차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연해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시내병원, 한방병원 등 현지의료기관 방문, 이상설유허비 및 발해성터 탐방, 크레모바 등 고려인 현지정착지 등을 방문했다.

송상윤 (필자는 우리센터 부경대 장애인봉사동아리 ‘우리들의이야기’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세계청년봉사단(KOPION) 10기 해외파견봉사단원으로 선발돼, 2005년 2월부터 연해주 고려인을 돕고 있다. 이 활동을 확대, 연장하여 현재는 동북아평화연대에서 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는 의료봉사활동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연해주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연해주의 의료환경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관설립이 워낙 복잡해 그 준비를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신상문 동평연구정책실장의 기조발제, 연해주 보건국대표의 “연해주 의료실태와

송상윤

자발자봉!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다사랑회

건물 입구부터 고소한 향내가 풍겨 나왔다. 그 진원지는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다사랑회’의 반찬 조리장.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다사랑회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마다 서너가지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홀로어르신,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이웃 40세대에 전해주고 있다. 회원들은 반찬봉사를 쉽게 빠지지 못한다. 반찬이 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반찬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어르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하나씩 모아 두었던 야쿠르트를 건네주시는

할머니, 정이 그리워 30분만 이야기 하자며 손목을 잡는 분, 반찬이 맛있다며 없을 때를 대비해 아예 집 열쇠까지 주신 어르신, 고마움에 눈물지으며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시는 할머니, 한창 먹성이 좋아 쌀이나 생필품을 챙겨 몇 번 더 찾게 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반찬봉사는 개별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에 동참하여 2000년 3월 봉사단을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어르신 생신잔



치도 함께 해왔으나 현재는 팀을 분리하여 10명의 정예회원들로만 활동하고 있으며 목욕봉사, 시설 및 장애인방문봉사, 차량봉사,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회 반찬재료비로 사용되는 30여만원은 회원들의 십시일반 회비와 후원회 지원 등으로 감당하고 있다. 회원들은 후원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도시광안아파트부녀회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달걀 400개와 김120봉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다. 반찬맛도 좋아 인기가 높다. 그비결은 최고의 재료와 양념. 김양

자소장은 반찬봉사 때마다 반여동 농산물 새벽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양념류 또한 최고급으로 마련하고 있다.

봉사연수만 10년을 훌쩍 넘긴 이춘이씨는 “고마움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아쉬워요”라며 더 지원하고픈 회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심전심으로 센터에서도 후원회원을 증원시켜 올해는 지원세대를 늘이고,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센터와 복지관, 가족협회 등과 사전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채경 팀장



칼럼

# 부신의 자원봉사 발전과 청소년 봉사활동

### 청소년 봉사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는 연결고리이자 통로



임 장 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자원봉사활동은 체험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성을 함양함으로써 자기존재의 확신과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으로 학생봉사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지식중심 학교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개발과 인성함양에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학생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청소년이 시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활동 개발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자율참여의 청소년문화를 육성하는데 두어야겠다.

이를 위해 청소년봉사활동을 위한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청소년 봉사활동터전 인증제 도입, 청소년 봉사활동 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 동아리 조직 및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되고 있다(이광호, 2005).

그 동안 학생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의해 학생봉사활동이 시간 채우는 형태로 사회적 잡음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느덧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사회 인식 변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해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으며, 부모들은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학생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 같은 가정에서의 편협한 경험과 타인에 대한 몰이해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 인성교

육의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봉사활동이며 이 봉사활동이야말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직접 체험과 실천을 통해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21세기를 주도할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개발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와 닿는 체험적 봉사활동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집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학년 1홀로어르신 결연봉사활동, 사랑의 나눔터 바자회, 지역사회 환경 살리기 등 봉사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봉사활동 유관기관과 연계, 봉사활동 터전 및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다. 다시 말해서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는 연결고리이며 통로라 할 수 있기에 학생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자원 등 각종 자원으로부터 지원과 서비스를 받고 기회를 얻는 동시에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 기여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생자원봉사활동은 기존의 활동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변화를 향한 사회문화적 기여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웰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World News

### ▶▶ 코소보 재건을 위한 노력

전쟁이 끝난 뒤 코소보로 돌아온 피난민들에게 삶의 터전 마련과 식료품 공급, 생필품 수급 및 의료지원을 위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9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다.

200명이던 지원자가 2000년부터 600명으로 증가되어 그 해 10월에 치러진 선거지원 봉사를 기점으로 현재 59개국, 147명의 봉사자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코소보 재건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평균 연령이 40세이며 석사 또는 자신의 봉사영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7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여행을 위한 여권 및 여행관련 문서지원, 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의료 및 의료보험체계 구축,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재정확립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소보 재건을 돕고 있다.

### ▶▶ 시리아 인권옹호운동 자원봉사

지금 시리아에서는 인권옹호운동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및 젊은층 대상의 국제적 커뮤니티 창설을 위해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 기회는 시리아에서 행해지는 UN산하 자원봉사단체에서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앞으로도 UN산하 자원봉사단체에서 실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옹호지지운동에 대한 활동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보통 UN산하 단체에서의 활동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권운동분야에 대한 활동을 보장해주어 더욱 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06년 레비논사태 때문에 시작된 시리아에서의 활동은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관련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사제공: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VISO 이희준

## 궁금해요

### 국내 최고 높이 북항대교 착공

해안순환도로망 핵심구간, 2011년 완공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축인 북항대교가 건설에 들어갔다.

2011년 완공되는 북항대교는 감만동 신감만부두에서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까지 3.3km에 이르며 총 공사비 3,815억원이 들어간다.

높이 190m의 대형 주탑에다 로프를 늘어뜨려 도로상판을 매다는 사장교 형식으로 해수면에서 도로 상판까지의 높이가 60m에 이른다. 이는 국내 최고 높이로 광안대교(35m)보다 배정도 높다.

부산시는 지난 2003년 광안대교를 시작으로 북항대교(2011), 남항대교(2008), 명지대교(2009), 신항, 가덕도를 잇는 해안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완공시 물류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지역격차해소, 관광자원활용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항대교가 본격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환경문제, 실용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부산시는 두 대교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영도를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권민혁 명예기자

## 20대 여성 인터넷 사회공헌 최고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005년 5월 오픈한 싸이월드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일촌봉사활동 52.3%, 도토리 후원 35.6%, 온라인서명운동 35.5%의 참여율을 보여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중 20대 초반 여성이 40.4%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여율을 보였으며, 11.9%의 20대 후반 여성과 9.6%의 20대 초반 남성이 그 뒤를 따랐다.

봉사 유형별로는 노력형 봉사가 2만6천2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장애아동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외출지원, 교육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전체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5년 대비 2006년 한해 동안 일촌봉사 참여자 및 후원자는 205%, 후원자는 116%가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인터넷 사회공헌활동이 모든 연령층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자봉만평

김명진





# 2. 봉사단 활동



### ◀ 가온누리봉사단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지역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제1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를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최했다.



### ◀ 누리마루중국어봉사단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단기 민박봉사, 가정초대 민박 및 전통음식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부산장애인에방협회

장애인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하여 동래요양원 및 지비원 목욕봉사, 영광재활원 장애아 식사보조 등 정기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사랑의열매봉사단

지난달 16일까지 삼안요양보호사회 주최 간병인 교육(120시간)을 수료한 후, 좋은애인병원에서 주1회 이상 목욕·간병봉사를 하고 있다.



### ◀ 원봉공회

원광단기보호소 치매어르신 및 무지력자 목욕봉사를 비롯해 장학기금 마련 재활용품 판매, 군부대 간식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 Best 봉사자 |

**김은경 (진)** -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11회 99시간의 가정생활관련 상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일영 (선)** - 재난복구봉사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대포해수욕장 등에서 총34회 70시간의 급식지원, 환경보전, 행사지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덕애 (미)** - 원봉공회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원봉공회내 은혜마트 등에서 총11회 74시간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판매, 행사지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 16일부터 2007년 1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가장 많이 등록된 봉사자입니다. 이번 호부터 자원봉사활동 실적 최종 등록일이 매일 2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개합니다 — 단체 회원

###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

매일 30~40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곳이 있다. 틈틈이 외국인도 눈에 띈다.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민중의술로 병을 치료하는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의 사무실이다.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단장 강유)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구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상철 홍보실장은 소개한다.

민중의술연합은 작년 9월 발족하여 20여명의 정회원들이 사무국 안에 상설치유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전통의술인 침(수족침·



이(耳)침·봉(蜂)침 등), 뜸, 부황, 수기(마사지), 민간요법 등으로 사랑의 인술을 베풀고 있다.

특히 시술의 안정성과 치유성 등 그

우수성이 입소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환자들과 외국인들까지 찾아와 사무실이 더욱 좁게 느껴진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산지역의 각 구청과 연계하여 복지관과 경로당을 비롯한 어르신모임을 찾아가는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울산, 경남의 농어촌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시술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가슴 따뜻한 목표를 갖고 있다.

## |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기 |

###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손자이고 싶어

어르신과함께하는HappyTogether 팀 · 동아대2 이선혁

자원봉사활동! 그 이전에는 특별한 정신력과 남다른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야말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짧다면 짧은 대학생활동

동안 많은 사회경험을해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그만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그 것은 저에게 꽤나 큰 충격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미처 정성을 다 드리기도 전에, 설마하다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좀더 잘해드릴 것을...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지만, 생전에 못 다 드린 정성을 우리 할머니처럼 노년기를 겪고 계실 어르신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어르신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팀의 봉사활동 장소는 감천동 소재 “행복한 어르신 집”이라는 그룹홈이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괴정 소재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저희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잠을 내어 행복한 어르신 집을 방문하였는데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마치 일반 가족처럼 함께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드릴 수 있고 가족과 같은 생활로 마음의 안정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형태이며, 운영하시는 김수혜 원장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일은 크거나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또 다른 손자가 된 듯 말벗도 되어드리고 따분한 병원생활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결과, 어르신들도 저희가 가면 매우 반겨주시고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며 도와 드린다는 생각에 한편 마음이 편하고 보람되게 활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손자이고 싶고, 좋고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며, 끝으로 수고한 우리 팀원들과 세세히 신경써주신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글을 맺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강서구자원봉사센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조성혜)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주2회씩 총8회에 걸친 POP(예쁜글씨)강좌 개설에 이어 18일부터 이틀간 청소년자원봉사자학교에서 장애체험 및 장애우와 과자 만들기 '하나 된 마음'을 실시했다.

**②금정구자원봉사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소장:박종필)에서는 지난달 13일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년하례 및 올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23일부터 오는 2월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③기장군자원봉사센터**

기장군자원봉사센터(소장:지복순)에서는 지난달 8일 봉사단 활성화 위한 봉사단회의 및 신년회를 개최했으며, 이마용봉사회 지정자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기장군내 5개면과 각종 복지관 및 병원 등에서 주2회 이상 이마용봉사를 하고 있다.

**④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소장:황영숙)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강동훈씨가 작년 말에 후원한 다량의 의류와 지난달 3회에 걸쳐 후원한 탈점퍼 90점 및 조끼, 가방 등과 문헌동 사랑은행 '좋은이웃'에서 후원한 쌀 100kg을 나눔재단에 기증했다.

**⑤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배영호)에서는 지난달 나눔기계 수익금으로 수정4동 홀로어르신 및 경로당에 쌀(20kg) 10포와 극세사 이불 10채를 전달했으며, 21일 허치슨봉사단이 수정3동 망양노인회에 무료로 배 및 장판, 형광등 교체 작업을 했다.

**⑥동래구자원봉사센터**

동래구자원봉사센터(소장:구철수)에서는 지난달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일과 11일 장애인 친구와 하나 되기, 12일 119소방안전체험, 15일 문화재탐사, 16일 평가식 등 5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⑦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소장:유영란)에서는 지난달 13일 해피북봉사단이 정기회의와 함께 일반찬을 만들어 홀로어르신 6세대에 전달했으며, 두레박봉사단도 정기총회를 통해 자원봉사교육과 풍물봉사자 양성교육 및 활동계획 수립 등을 했다.

**⑧북구자원봉사센터**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인선)에서는 지난달 10일 엔젤오브뮤직팀 자선음악회에서 자원봉사 홍보와 함께 모아진 성금을 정화노인요양원에 전달한데 이어 투선의 구포도서관 장서정리, 3기 수료생 10명이 발마사지 자격을 취득했다.



**⑨사상구자원봉사센터**

사상구자원봉사센터(소장:홍봉선)에서는 지난달 25일 주부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부 자원봉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29일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및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일사분기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⑩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하구자원봉사센터(소장:장구락)에서는 지난달 9일 운영위원회에 이어 17일 '우리아이들 글짓기와 독서지도'에 대한 교육사랑방 특강이 있었으며, 18일 경락봉사단이 장림분동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락마사지봉사를 했다.

**⑪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운주)에서는 지난달 14일 하안버들기사람모임이 소화영아재활원 장애아들과 이기대공원-광안대교-벡스코 등으로 나들이를 했으며, 23일과 24일 불린티어21과 함께 '부산시 서구 자원봉사 리더(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⑫수영구자원봉사센터**

수영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양자)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06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4일 신부산교회와 상호협약식 체결, 8일 실버문화교실 신년인사회 및 떡국대접, 17일과 25일 운영위원회 및 후원회의를 개최했다.  
\*떡국·물품후원-김영순·이춘이

**⑬연제구자원봉사센터**

연제구자원봉사센터(소장:하만호)에서는 지난달 9일 통타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 부산일보 인터넷 신문 생생리포트에 기사화되었으며 21일, 22일, 25일 3일간 서부산통게이트에서 홀로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열매 성금모금활동을 펼쳤다.

**⑭영도구자원봉사센터**

영도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귀자)에서는 지난달 2일 센터 시무식을 시작으로 9일 열린 환경강사단 총회에서 임원선출 등이 있었으며, 2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⑮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소장:최상수)에서는 지난달 31일 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한 자원봉사 전문 강사 간담회에 작년 12월 실시한 제1기 자원봉사 전문 강사 양성교육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 및 팀구성 등을 협의했다.

**⑯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소장:박홍일)에서는 지난달 9일과 17일 150명의 환경포유회 및 해운대교육청 봉사자 대상 자원봉사교육에 이어 15일부터 27일까지 겨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16일 동부지원 봉사자 2기 발대식을 가졌다.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